

‘원스토어 차단’ 구글, 8496억 과징금 폭탄 위기

공정위, 구글에 심사보고서 송부
앱마켓서 게임사 이탈 막기 위해
최혜대우·누진적 지원 계약 체결
법 위반 판정 시 매출 6% 과징금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을 포섭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으로의 이탈을 막은 구글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원에 달해,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 상한액 적용 시 최대 8496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구글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구글) 측에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로 시작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한 게임사들이 구

글 앱마켓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이른바 ‘GVP(Game 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 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총 92억1777만달러(약 14조 1600억원)로 산정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최혜대우’와 ‘누진적 지원’이다. 게임사가 신작 게임의 출시 시기가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게, 혹은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을 걸었다. 구글은 그 대가로 클라우드, 애즈(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대 줬다. 특히 구글 앱마켓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이 지원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를 설계해 게임사들을 유인했다.

심사관은 구글 측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판단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GVP 계약의 내용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했다는 점”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 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총 92억1777만달러(약 14조 1600억원)로 산정했다.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법 위반 판정이 내려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 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의 조치 의견일 뿐, 최종 제재 수위는 법관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박균배 한국중부발전 디지털처장(왼쪽)이 ‘2026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AI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 ‘하이코미’ 도입으로 AI 혁신부문 대상

표준협회 주관 ‘대한민국 혁신대상’

한국중부발전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사적 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내 최고 권위의 혁신 기술 시상식에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중부발전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AI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인 ‘하이코미(HI-KOMI)’를 도입해 전사적인 업무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I)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발전소는 데이터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부발전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외부 클라우드와 완전히 분리된 자체 폐쇄망 환경에 ‘하이코미’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발전소 고장·정비 사례, 전문 기술 보고서 등 사내 핵심 데이터 약 100만 건을 외부 유출 우려 없이 안전하게 학습시켰으며, 강력한 데이터 보안 속에서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부발전 더블유피 청렴혁신포럼

14개 협력사와 ‘청렴혁신협약’

한국서부발전이 협력회사와 함께 반부패·청렴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0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더블유피(WP) 청렴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서부발전 청렴시민감사관 3명과 고려엔지니어링, 한중이엔지, 에코파워텍 등 14개 협력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참석해 포럼의 출발을 축하했다.

서부발전은 향후 이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로부터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이렇게 제안된 과제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서부발전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적극 반영되며,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부발전과 14개 협력회사가 청렴한 기업환경 조성 및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골자로 하는 ‘청렴혁신협약’을 체결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은 협력회사와 부패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며, 협력회사들은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정착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항 크루즈 방문객 年 100만명 목표”

부산항만공사, 모항지 전환 방침
체험 프로그램으로 저변 확대
지역기업-글로벌 선사 연결도



부산항에 접안 중인 크루즈선 /BPA

부산항만공사(BPA)가 연간 100만 명의 부산항 크루즈 방문객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부산항을 기존의 기항지(배가 잠시 거처하는 곳) 중심에서 모항지(여행 출발·최종 도착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는 최근 발표한 ‘2030 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계획’에서 ▲크루즈 유치 ▲국내 저변 확대 ▲연관산업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우선 크루즈 유치 분야에서는, 단순 기항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모항’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내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을 관광하고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뒤, 부산항에서

크루즈를 승선하는 항공·철도 연계 모항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변 확대를 위해 여행업체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크루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제행사와 연계한 맞춤형 포트세일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1·2위 크루즈 항만인 부산과 제주의 동시기항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한다.

연관산업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크루즈 선용품 선적실적 가운데 75%가량이 부산항에서 공급됐다. 이에 지

역기업과 글로벌 선사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확대, 해외 판로개척 지원,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크루즈선 203항차·25만 7000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항을 찾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9항차·32만여 명이 방문했다. 올 연말에는 총 420항차·약 7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일시적 호황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

기 위해 이번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비전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크루즈 허브 육성’이다. ▲2030년까지 크루즈선 520항차·관광객 100만 명 달성 ▲대한민국 대표 크루즈 모항 기반 구축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BPA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한 포트세일즈 확대,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 모항 기반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산 CIQ기관은 초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5000명 이상 승객의 승·하선을 2시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CIQ기관과의 협의회에 24시간 터미널 운영, 면세·환급 서비스, 선박 전자검역 도입 등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평가 ‘A등급’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국가 자원순환 대표기관 역할 확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해당 연례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 자원순환 대표기관으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경영 기반 정비를 높게 평가 받았다. 또 친환경 매립을 비롯해 자원순환 고도화, 환경명소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관 고유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한 점도 우수 등급 획득에 기여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정비·재재화하고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19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친환경매립, 자원순환체계 고도화, 환경명소화 사업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매립 부문에서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 여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과 환경관리 추진으로 환경민원 2년 연속 제로를 달성했다. 또 국가 핵심기반시설 재난관리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과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 선정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수혜 고객 직접 발굴·지원

한국전력이 소외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몰라서 못 받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선다. 복지부·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해 미수혜 고객을 직접 발굴·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1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가 확대돼 월 최대 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397만 고객이 총 7141억원(1인 연평균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적극적

인 현장 발굴을 통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8만 5000 고객을 새로 찾아내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한전은 폭염기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 소상공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2~6개월간 나누어 내는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복지할인 및 분할납부 신청은 한전의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발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